고흥군, 민선8기 공영민 고흥군수 취임식 열려

하나된 고흥 발전의 대여정 시작

슬로건,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민선8기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1일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김승남 국회의원, 경향각지 향우,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취임식은 고흥의 진정한 주인은 군민임을 강조하는 행사로, 식전 공연과 민선8기에 바라는 군민의 목소리, 민선8기 비전 영상,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군민의 목소리 영상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군민들이 "취임하는 공영민 군수가 고흥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취임사에서 "고흥의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길에 군민 한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 군민과 함께 고흥발전의 대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다함께 잘사는 고흥 ▲10년 후 인구 10만이상의 웅군 진입 ▲고흥관광 1천만명 시대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 ▲촘촘한 복지체제 구축 ▲지역정주기반 확충이라는 군정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고흥군은 민선8기 슬로건을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하고 고흥 미래에 새 희망을 불어넣자는 의미로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으로 정했다.

/이유빈 기자

민선8기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1일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김승남 국회의원, 경향각지 향우,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장흥군 정남진도서관 지역작가 문학강좌 운영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은 전라남도립도서관 주최로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는 전라남도립도서관에서 시군 지역작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주최측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을 위로하고 좁아진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좌 '이대흠의 시;톡(詩;talk)'은 이대흠시인의 시 쓰기 교재 '시톡1,2,3'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시작법을 익히고, 실제로 자신의 창작시를 쓸 수 있게 하는 실전 중심의 시 창작 강의다.

이대흠 시인은 장흥출신으로 1994년에 '창작과 비평' 봄호에 시 '제암산을 본다' 외 6편의 시로 등단했다.

문학강좌는 4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정남진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정남진도서관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백두연 기자

보성, 다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

애플망고·바나나·파인애플·백향과·용과 등

보성군은 최근 5년간 애플망고를 시작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백향과 등 다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보성군에는 애플망고 1.0ha, 바나나 0.3ha로 아열대 단지가 조성돼 있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친환경으로 올해 약 40톤 이상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탓에 아열대 작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아열대 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들을 비롯해 특히 귀농 귀촌인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관심이 뜨겁다.

보성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실증포를 운영해 파인애플, 애플망고, 백향과, 용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배기술 확립 및 보급으로 아열대 작목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공리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보성산 바나나와 애플망고는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 8월 중 본격 출하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바나나의 경우 7천~1만2천 원/kg, 애플망고는 3만~4만 원/kg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권현주 소장은 "농가분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애플망고를 비롯한 아열대작목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뿐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수 기자

진도군, 코레일 기자단 초청 팸투어 성료

진도군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자단을 최근 초청해 진도군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SNS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기자단과 광주전남 관광센터 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했다.

진도관광유람선, 명량해상케이블카, 운림산방,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등 진도군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각 관광지의 매력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냈다.

코레일 기자단이 취재한 진도 곳곳의 매력은 코레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서포터즈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홍보될 예정이다.

팸투어 참여자는 "진도의 맛과 멋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준 진도군에 감사하다"며 "기회가 되면 진도를 다시 방문해 가보지 못한 다른 관광지도 둘러보고 싶다"고 투어 소감을 밝혔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팸투어를 통해 자연과 체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진도군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전국 각지에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기회에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군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해남군, 원숭이두창 방역 대응 강화

해남군보건소는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내는 지난달 22일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원숭이두창의 감염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손 씻기 등) 준수,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자제, 방문할 경우 개인 보호구 사용▲야생 동물과의 접촉 자제,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 ▲ 발생 지역에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전 문의하면 된다.

의심 사례로 접수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국립목포병원으로 신속히 대상자를 이송 후, 검체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해외유입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완도,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완도군은 최근 생활문화센터에서 청렴도 향상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을 초청해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규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적극행정 기법, 감사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 '희망 완도' 채널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해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7월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군민 청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